**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실-기구개발 분야 지원자,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 이종건입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내일 해야할 일, 일의 순서 등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습관이 되어서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전략을 세우고, 친구들을 이끕니다.

저는 저를 지나쳐 가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한번이라도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기억하여 인사를 하는데 상대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여 민망한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긍정적인 상황이 더 많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을 바탕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 지원동기**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미래 지향적인 학교 연구는 저에게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상품 개발과 직접 연관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 진출을 위해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현역 군입대보다 전문연구요원을 하는 것이 저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이론과 실험을 모두 좋아하고, 광학과 통신에 대해 공부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 매우 적합한 업무라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장단점**

저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는 처음으로 머신 러닝을 시작하여 광학 소자 설계에 이용하였습니다. 학부 시절 SK 하이닉스 NAND부서에서 인턴 당시 계획보다 빠르게 배운다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달 후 진행했던 산학 장학생 면접에서도 인턴 중에 공부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 무리없이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학부 시절 과제를 할 당시에는 느끼지 못 했어지만, 대학원에서 산학 과제와 저의 개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경이 예민해져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과 시간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간단하게 하여 식곤증을 없애고, 남은 식사 시간동안 잠을 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